

탈북여성시 연구의 의미와 한계

상처받은 여성(女性)과 형상화되지 못하는 트라우마

이상숙(가천대학교)

이 논문은 탈북 여성의 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만의 탈북자 중 60~70%에 달하는 여성탈북자의 아픔과 토로가 담긴 여성 탈북시를 살피는 것은 문학 연구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분단의 그늘과 통일 의 기대가 공존하는 오늘날, 이들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소수자이며 이방인 아닌 이방인이다. 또 이들의 시쓰기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남한 사회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아픔과 변화를 드러내고 정체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과정의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시의 주제는 기아와 가난에 대한 증언, 압제에 대한 고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안타까움 토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더해져 중층의 트라우마가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시로 형상화할 때 피상성과 소극성이 보인다. 고통과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하고 극복하기보다 토로하고 고발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트라우마를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양상도 있었다. 탈북여성시를 문학적 관점이나 젠더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 문학의 현재이며 분단의 문학적 현상이며 문학이 대변하는 사회이자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주제어: 탈북시, 북한이탈주민, 탈북여성시, 트라우마

1. 서론

이 논문은 여성 탈북자¹⁾의 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30 여 명의 탈북자가 개인시집을 내거나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는 탈북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남성시인으로서는 김성민, 장진성, 도명학 등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이다.²⁾ 최근 통일 문예, 북한인권문학상 등의 문예 공모 과정을 통해 탈북문인, 탈북시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도 여성이다. 따라서

-
- 1)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문학론을 다루는 이 논문에서는 ‘탈북’, ‘탈북자’, ‘탈북여성’ 등의 명칭을 쓴다.
 - 2) 현재 탈북자, 탈북인,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명명되는 탈북자의 수는 3만 명에 이르고 이 중 60~70%가 여성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검색일: 2018.4.16) (출처: 통일부. 최근 갱신일: 2018.3.16).

<표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전체)	1,514	1,397	1,276	1,418	1,127
남	369	305	251	299	188
여	1,145	1,092	1025	1,119	93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한다.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가 947명이었으나 이후에 폭증하여 2007년에는 1만 명, 2010년에는 2만 명을 넘어 2017년에도 3만 명에 이른다 한다. 이 중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서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에 달한다 한다.

여성탈북인들의 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탈북시 전반은 물론 탈북문학의 주요한 부분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탈북인들의 문학 창작과 그에 대한 연구는 통일문학, 민족문학 등의 문학적 범주에서 의미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를 반영하는 현실로서도 의미가 있다. 비록 이들의 작품이 주제, 소재의 다채로움이나 예술적 성취의 차원에서 한계가 있더라도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과 현실을 그려내는 문학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쓴 시’로 한정한다. 탈북여성시를 정의하고 범주를 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다. 시인의 나이, 탈북 시기, 이유, 현재 거주지, 현재 경제 상태와 같은 개인적이고 외형적인 조건부터 경험, 트라우마의 종류, 망명자 혹은 탈주자로서의 의식, 작가 의식 등 정서, 정체성에 관련된 조건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 창작자의 성별, 나이, 출신지와 관계없이 탈북 여성 소재, 형상에 집중한 작품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탈북여성시의 내용, 주제, 경향을 설명해 줄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여성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정도로 소략하고 이 논문 또한 그에 속하여 위의 조건들까지 세심히 반영하여 논의하지 못했다. 다만 탈북여성시에 대한 기본적 고찰로서 전반적 양상과 주제적 특징, 의미와 한계, 탈북여성의 삶과 시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탈북문학, 탈북시, 탈북여성시의 범주, 특징, 한계

탈북문학은 북한문학과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 문학의 분단을 방증

하는 동시에 통일 문학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탈북자들을 ‘미리 온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탈북문학은 오늘의 한국 문학인 동시에 내일의 한국문학이 된다. 북한이탈 과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³⁾, 고향 상실의 디아스포라 문학⁴⁾, 체제 저항의 문학⁵⁾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문학⁶⁾ 등 탈북문학의 범주는 논자마다 다양하게 설정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작가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창작한 문학작품’으로 한정한다. 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은 작품집을 내거나 문예지 등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는 것 문인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북 소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탈북 소재와 주제⁷⁾, 디아스포라문학⁸⁾, 탈북작가⁹⁾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체성과 소외의 문

-
- 3)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2009); 강정규, “탈북이주민(脫北移住民) 문화의 시적 수용: 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5호(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 4) 박덕규·이성희 외, 『탈북 디아스포라』(푸른사상, 2012).
- 5) 방민호, “한국어문학, 북한문학, 탈북문학, 분단문학, 전후문학: 해방 이후 문학 연구 방법 및 개념적 도구들,” 『국제학술대회 탈북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자료집』(서울대학교 신양문화관 국제회의실, 2017.8.26).
- 6)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46집(아시아문화연구소, 2018.4).
- 7)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권 3호(2015);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2009);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소설연구,” 『현대소설연구』, 53호(2013).
- 8) 박덕규·이성희 외, 『탈북 디아스포라』(푸른사상, 2012);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이방인들』(푸른사상, 2014);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2014).
- 9) 권세영, “소수집단문학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창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집(한중인문학회, 2012); 권세영, 『탈북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아주대학교 대

제¹⁰⁾, 차별, 소외, 자본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정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¹¹⁾, 탈북 여성의 형상화와 정체성¹²⁾ 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고발이나 기아 경험, 탈북 과정의 고초를 드러내는 유형적 주제를 넘어 남한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정치적·사회적·개인적·정서적·경제적 문제까지 광범하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탈북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소략하면서도 평면적이다. 출판된 작품 수가 많지 않기도 하고 소설처럼 구체적 인식과 현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장르적 특성도 있을 것이다. 또 작가군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여러 시인이 유입되지만 같은 이유로 그 문학적 수준의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고픔, 죽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의 소회로 유형화되어 획일적으로 보이는 시의 소재와 주제 또한 한 요인이다. 내밀한 개인의 정서나 인식적 변화를 담기보다 정치, 정책 이슈의 구호를 담는 고양된 언어 형식으로써 시라는 장르를 학습하고 경험한 탈북인들의 장르 의식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¹³⁾

탈북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적고 대상이 되는 텍스트도 한정적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0) 서세립, “탈북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52호(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11)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호(2009); 서세립,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집(2017).
- 12)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집(2013);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호(2017); 김소륜, “탈북여성을 향 한 세겹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41호(2017); 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11호(2017).
- 13) 이는 다른 논문을 통해 논증이 필요한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 또한 소략하다. ‘탈북 1호 시인 김성민’ 시의 주제를 살핀 류신¹⁴⁾, 탈북이주민의 개념으로 탈북시의 개념과 특질을 논의한 강정구¹⁵⁾,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참상을 그린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대상으로 한 임도한¹⁶⁾과 박덕규·김지훈¹⁷⁾, 탈북시의 주제 유형을 살피고 시쓰기의 의미를 논의한 이상숙¹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탈북시의 개념과 주제적 특징과 같은 일반론과 김성민, 장진성 등 초기 탈북하여 대표적 탈북시인으로 활동하는 시인에 한정된 논의이다. 탈북 소설 연구에서 보여주는 탈북인들의 정체성, 트라우마, 정치적 의식, 여성, 소외, 적응 등의 다면적 주제론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김대호가 『가장 슬픈 날의 일기』(동해, 1997)을 발간한 이후 김성민, 장진성, 도명학 같은 초기 탈북 시인들과 김옥애, 김옥, 백이무¹⁹⁾, 이수빈, 이가연, 오은정, 김수진에 이르기까지 16권의 시집²⁰⁾을 낸 10여

-
- 14) 류신, “대동강과 한강을 잇는 시적 상상력의 가교,” 『실천문학』, 83호(2006, 가을호).
 - 15) 강정구, “탈북이주민(脫北移住民) 문화의 시적 수용: 탈북이주민 시의 개념과 특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35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 16) 임도한, “극심한 기아 체험과 육망 억제 가능성: 탈북 시인 장진성의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를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8권 2호(2009).
 - 17) 박덕규·김지훈,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장진성의 시집과 수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7집(2014).
 - 18)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 19) 백이무는 탈북여성이지만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원고를 보내 두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탈북여성으로 시집을 발간한 시인으로서 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 20) 최근, 자세한 신상은 알려지지 않고 북한 내에서 체제저항의 글을 쓰는 작가로만 알려진 반디가 소설 『고밭』(다산책방, 2016)에 이어 시집 『붉은 세월』(조갑제닷컴, 2018)을 출간했다. 필명 ‘반디’는 재북 작가로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 『붉은

명의 시인들과 『통일코리아』, 『북한』, 『문학에스프리』 등의 문학지에 발표하는 시인들, 여기에 정식 국제PEN 클럽 단체로 인정받아 활발히 활동하는 탈북문인 단체 ‘국제 PEN클럽 망명북한 작가센터’ 발행 『PEN』이 시행하는 북한인권문학상²¹⁾과 같은 문예공모에서 발굴된 새로운 시인군을 합쳐 현재 30여 명의 탈북시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비교적 최근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백이무, 이가연, 이수빈, 오은정, 김수진, 김혜숙, 박영애, 박주희, 설송아, 송시연, 주아현, 지현아는 모두 여성시인이다.

탈북여성시는 탈북 전 북한에서의 곤궁하고 속박된 생활,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초와 두려움, 한국 입국 후 정착의 어려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 등으로 유형화된다.²²⁾ 여기에 종교 귀의 후 신앙심을 드러낸 시, ‘자유세계’에 정착한 안도감과 기쁨을 피상적으로 드러낸 시 등을 더할 수 있는데 활동하는 시인의 수가 많지 않고 등단 장벽이 높지 않아 엄격한 문학성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유형화된 주제 의식을 보인다. 북한의 기아 상황과 배고픔의 기억에 대한 시들²³⁾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²⁴⁾, 자신은 자유세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주민이 안타깝다는 내용과 통일이 되어 민족이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시²⁵⁾가 대부분이다.

세월』은 다루지 않았다.

21) 망명북한작가PEN센터 주최, 2014년 12월 수상작 작품집 발간.

22)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23) 김옥애의 『죽사발 소동』(삼우사, 2005), 김옥의 『눈물 없는 그 나라』(서울문학출판부, 2009), 이가연의 『밤이 그리운 저녁』(마을, 2014), 『엄마를 기다리며 밥을 짓는다: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시산맥사, 2015).

24) 오은정의 『고향을 부른다』(작은통일, 2015).

유형화되고 획일적인 주제 유형은 어느 특정 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특징이어서 문학적 한계일 수도 있다. 북한에서 또 탈북과정과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그들이지만 시 안에 직설적 토로와 막연한 고통 이상으로 형상화되어 내면과 깨달음, 현실을 묘사하는 시가 많지 않다.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문학 분석과 함께 상담, 심리 분석의 도움으로 드러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진단도와 방법이 마련되지 않다. 따라서 시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할 뿐이어서 한계가 있지만, 경험의 객관화, 예술적 형상화의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는 있다. 트라우마의 무게가 시라는 문학적 도구에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경험에 압도된 시 창작의 전형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 또 탈북지는 시를 통해 그런 소재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자의식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부터 작가였던 것이 아니라 남한에 정착하면서 창작을 시작한 그들에게 경험을 승화한 문학, 예술 창작자로서의 작가 의식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트라우마 수준의 개인 경험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기까지 작가의 예술성 세련과 경험의 예술적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주의 문학의 도구적 기능이 아닌 예술적 도구로서의 시를 체득하고 시인의 의식과 소명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성민, 도명학 등 몇몇 남성탈북작가들은 탈북 전에도 북한에서 작가, 기자 등 글쓰는 직업을 가졌었고 탈북 후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 작가군인데 비해 탈북 여성시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⁶⁾ 보통 남한에 정착 후 탈북인들의 문예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

25) 이수빈의 『힐링 러브』(북마크, 2012), 김수진의 『天國을 찾지 마시라 국민이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天國이다』(조갑제닷컴, 2015), 『꽃같은 마음씨』(조갑제닷컴, 2016).

하고 있어 그들 시의 문학적 성취와 수준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가 없다. 또 그들 모두가 시인이라는 작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쓰기를 문학적이고 예술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도 전문적인 작가, 작가의식의 기준보다는 더 포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 작가 수업을 받지 않고 직업으로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언의 수단으로 시를 선택하고 창작한다는 것은 시를 통해 탈북여성의 내면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은 말로서 더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매체와 출판하는 경로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탈북인들의 글이 반공 정책의 일환으로 귀순용사의 탈북기, 탈북수기류로 보급되고 특정 매체, 특정 출판사를 통해 탈북인들의 글이 유통되었던 것처럼 아직 탈북여성시 또한 제한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물론 이는 탈북문학 전체의 상황이기도하다. 1990년대 후반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탈북문학, 탈북문인의 범주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탈북인들 스스로 자신의 문학 활동의 의미와 위상을 정치적 사회적 효용성에 두는 것 같다. 사회주의 체제의 적대 국가에서 넘어온 이방인으로서 북한의 참상을 고발하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명이나 임무로 인식하고 남한 사회의 요구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하는데 이것은 ‘남한에 대한 비판은 곧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한 자’로 인식될까 하는 방어기제의 결과이다.

26) 에세이집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북하우스, 2005)의 저자 최진이는 북한에서 작가동맹 소속 시인이었지만 탈북 후 시집을 내거나 시를 쓰기보다는 에세이 작가, 잡지 편집에 힘쓰고 있다.

탈북여성들은 탈북자, 여성으로서 몇 겹 더해진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탈북여성시에는 구체적 생활과 정서의 문제가 언급되기보다는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내용이 많은 편이다. 탈북 작가들이 “개별적 체험에 치우친 나머지 여타의 탈북자들이 지닌 다양한 의식지향을 객관적으로 서사화하지 못”²⁷⁾하는 이유가 시에도 적용된 것이다. 북한사회의 고발이나 배고팠던 기억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파헤쳐지지 못하고 있으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절절하게 드러나 있지만 남한에서 정착하는 어려움과 현재의 불안정한 심리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북한, 남한, 탈북, 새로운 결혼과 가족, 어머니의 의무, 소수자, 이방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온 사람 등 그들에게 부여된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은 피상적으로 유형화된 주제를 다르게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3.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것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는 북한 주민의 강력한 체험이자 두려운 기억이다. 이미 20년 전 일이지만,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어떤 참혹한 광경도 배고픔

27) 이성희,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탈북작가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2015), 3쪽. 언어의 상실, 부정, 대체자극에 몰두이다. 여성탈북자들이 끔찍한 기억의 장소인 중국을 찾아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말할 수 없을 과거의 기억을 발설하는 행위와 뒤도 돌아보기 싫을만큼 끔찍한 장소로의 회귀는 이미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했음”으로 판단한다. 위의 글, 9~10쪽.

때문이라면 쉽게 벌어지고 용인된다는 것은 열패감으로 자리잡는다. 또 그것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자체가 트라우마이다. 김옥애²⁸⁾, 백이무²⁹⁾와 같이 ‘고난의 행군’의 기억을 가진 탈북여성 시인뿐만 아니라 이가연³⁰⁾과 같은 젊은 세대의 시에도 굶주림은 여전히 강력하고 두려운 기억으로 재현된다. 또 가족을 두고 탈북한 이들에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김옥³¹⁾, 오은정³²⁾, 설송아³³⁾와 함께 거의 모든 탈북시인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이다.³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을 목격한 실제의 경험, 북한을 고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사명감, 북한의 참상을 들려주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남한 정부와 사회가 원하는 것이라는 판단 등이 탈북작가의 작가적·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고 이런 주제 유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8) 김옥애, 『죽사발 소동』(삼우사, 2005).

29) 백이무, 『꽃제비의 소원』(글마당, 2013),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글마당, 2013).

30) 이가연은 『엄마를 기다리며 밥을 짓는다』(시산책사, 2009); 『밥이 그리운 저녁』(마을, 2014).

31) 김옥, 『눈물 없는 그 나라』(서울문학출판부, 2009).

32) 오은정, 『고향을 부르다』(작은통일, 2015); “고향의 겨울,” 『통일코리아』, 1호(2013), 16쪽; “고향길,” “그곳에 가게 된다면,” 『통일코리아』, 3호(2014), 14쪽.

33) 설송아, “말없는 두만강아,” “압록강 가에서,” 『계간문학에스프리』, 문학에스프리, 2015, 겨울.61~63면.

34) 박영애, “엄마 생각,” 『망명북한작가PEN』(국제PEN 북한망명PEN센터, 2014.12), 129쪽; 지현아, “아버지,” 『망명북한작가PEN』(국제PEN 북한망명PEN센터, 2014.12), 121쪽; 박주희, “기다려다오,” “고향으로 가는 편지,” 『계간 문학에스프리』(문학에스프리, 2015, 겨울), 208~212쪽; 이수빈, “자유를 찾아,” 『힐링 러브』(북마크, 2012).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류사상 류례없는 비극앞에서
사람들은 웬 일인지 혀만 찰뿐
누구도 분개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야 사는
그 처절한 최후의 몸부림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 할말을 잃어간다
사람들은 이미 더는 사람이 아니다.

백이무, “최후의 몸부림” 부분³⁵⁾

백이무는 탈북 후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 현재는 제3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이다.³⁶⁾ 남한에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남한으로 시 원고를 보내 『꽃제비의 소원』,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 라는 두 권의 시집을 낸 바 있다. 이 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시인은 이 ‘비극’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한다.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비극’ 앞에 혀를 찰 뿐 분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 간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 때문에 아직 인간인 사람들은 이를 만류하거나 비판하거나 분개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35) 백이무, “최후의 몸부림,”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글마당, 2013), 26~27쪽.

36) 도명학에 따르면 2013년 당시 20대 여성이라고 한다. 도명학, “이 가련한 ‘꽃제비 시인’과 함께 울어 주세요!,” 『꽃제비의 소원』(글마당, 2013), 4~9쪽.

렇게하지 않고 “할말을 잃어간다” 아마도 망연자실하고 어이없고 참
혹한 광경이어서 그럴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그 처지가 될 수
도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렇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시인은 혀를 차다 말을 하지 않는 그들의 변화를 꿰뚫어 본다. 분개하
지 않고 아무 말 않는 것이 험겨워진 윤리적 잣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침묵에 깃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배고픔이라는 거대한 고통을 ‘사람들’도 시인도 알고 있
는 것이다. ‘살기’위한 ‘최후의 몸부림’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사람답
게 ‘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최후의 몸부림’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초의 행위가 된다. ‘최후의 몸부림’을 행한 자, 그들의 행동을 목격
하고 듣게 된 자,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자, 이들 모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서 있다.

수용소 규정대로 그 즉시
나무에다 뽕뽕 묶어 매달아놓기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
도망친 놈을 도로 잡아들여
극형에 처해야만 내리워진다

아니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도주자가 다시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나무에 매여달린채
참담하게 죽어야 할 가족의 운명…

아낙네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제라도 새끼들을 살리고저
차라리 남편이 잡혀오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을가봐
제발 멀리 어서 빨리 도망치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중얼댄다 ...

백이무, “탈주자 가족 매달기” 부분³⁷⁾

탈주(탈북)자를 검거한 북한 수용소는 ‘탈주자 가족 매달기’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경고를 보낸다. 대부분의 수용소 탈주자나 탈북자들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신으로 탈주(탈북)하여 나중에 가족을 데려오려 한다. 그때까지 남아 있는 가족들은 고통을 당한다. 탈주자가 돌아올 때까지 나무에 가족을 매다는데, 아내는 아이들 생각에 급기야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와도 목숨부지가 어려움을 알기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심이다. 탈주한 아버지 역시 남아 있는 가족이 겪을 고통을 모르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서 괴로워한다. 이 가족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서로 때문이다. 한 명 한 명의 신체와 정서,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 이상으로 가족이라는 절대적 사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상황이다. 가족의 사랑과 유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들의 결말은 비극이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상황만 비극이 아니라 차라리 남편이 돌아와 아이들 대신 죽기를, 아버지 대신 내가 죽기를 바라는 상황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비극 속에서 이 가족

37) 백이무, “탈주자 가족 매달기” 부분,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글마당, 2013), 48~49쪽.

은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가족의 사랑이라는 존엄함은 지켰다. 그러나 수용소는 존엄한 가족의 유린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때로는 승리한다. 멀리서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던 탈주자가 돌아오고 수용자들은 탈주를 포기한다. 북한주민에게 이런 일을 일상으로 행하는 수용소, 국가, 체제는 무엇인가?

빌어먹을 곳 없고
얻어먹을 곳 없고
지옥시계도 멎은
고향을 떠나

이국살이 얼마던가
설움으로 배를 채워
숨어 산 지 어언 9년 ……

오늘도 잡혀간다.
갑자기 달려든 공간에
앞집에선 영화
뒷집에선 임신한 순이

못 가요!
우린 잡혀가면 죽어요.
제발 ……
살려주세요!
우리 스스로 두만강 건너갈게요.

끌고가는 자와
끌려가는 자의
생사의 줄다리기

그때 보았다.
끌려가면서도 다시 오리라 다짐하는 것을……

그리고 나도 끌려갔다.

조국은
임신한 순이의 야윈 등에
시멘트 포대를 지워
뱃속의 아이를 죽였다.

조국은
주린 배를 채우려
국경을 건넌 죄로
나무각자에 맞아 굳어진
어느 할아버지를 보게 했다.

나는 보았다.
남의 나라 종자라며
갓 태어난
아기를 엮어놓아
죽이는 살인귀들의 눈빛에서

밥에 굶주린 인민과

인민의 피에 굶주린 조국을 보았다.

지현아, “피에 주린 조국”전문³⁸⁾

이 시에는 식량난으로 탈북하여 9년간 이국에서의 서러운 삶을 살다 결국에는 공안에 검거되어 송환되는 화자의 눈에 비친 ‘조국’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는 빌어먹을 수도 얻어먹을 수도 없어 고향을 떠났다. ‘조국’으로 타자화된 북한의 체제, 당국, 정치권력의 눈에는 반역자이며 체제 저항분자겠지만 이들은 주린 배를 채우려 국경을 건넌던 할아버지, 이국땅에서 설움받으며 사는 영희, 중국인과 결혼하여 임신한 죄밖에 없는 순이일 뿐이다. 뱃속의 생명도 갓 태어난 생명도 ‘남의 나라 종자라며’ 죄의식 없이 죽여 버리는 군인과 수비대는 살인귀와 같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배후에는 ‘인민의 피에 굶주린 조국’이 있었다. 선량한 인민을 쉽게 죽이고 그 피를 거래하고 흥정하는 이들이 사는 곳, 그들의 행위로 체제를 지키려는 ‘조국’은 살인귀가 사는 지옥과 같다. 이미 ‘지옥시계’도 멎었다 하니 이곳은 지옥을 넘어선 지옥이다. 주민의 목숨, 재산, 안녕을 보호해야 하는 ‘조국’은 없다. ‘인민’으로서의 인권은 물론 배고픔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성’을 보호 받을 수도 없다. 이 ‘조국’의 여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생존을 위해 결혼을 해야 했고 ‘남의 나라 종자’를 품고 낳아야 했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겨야 했다. 모두 그 원인 제공은 ‘조국’이 한 것이다. ‘남의 나라 종자’는 이 여성들이 품은 소중한 생명이며 ‘조국’의 생명이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38) 지현아, “피에 주린 조국,” 『망명북한작가 PEN 문학』(2014.12), 122~123쪽.

더 이상 조국일 수 없는 ‘지옥’일 뿐이다. 이 시를 통해 지현이는 ‘조국’이 버린 ‘조국’에 휩쓸리는 인민의 모습, 여성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나 순이는 왜 조국을 떠났는지, 순이는 왜 ‘남의 나라 종자’를 임신했는지, 아이를 잃은 순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거주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 중에서도 여성은 약자이다. 남성위주의 분배체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가족주의적인 국가관에 의해 여성은 가부장제에 종속되어 교육, 노동, 기회의 불평등을 감수하는 ‘이등국민’ 계급에 놓여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는 장마당 경제 활동에 내몰려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국가, 관료의 처벌, 가족 내 남성에 의한 착취와 폭력으로 북한 여성과 그들의 모성은 인정되지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³⁹⁾ 국가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비공식적 장마당 경제는 여성들의 몫이었고, 여성에 대한 수요가 큰 중국으로 북한여성들은 쉬이 넘어간다. 탈북여성들은 중국인과의 혼인,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혼, 성매매, 성폭력의 상황에 처해진다. 남의 나라 종자를 임신한 순이는 이렇게 생겨난 것이고 공안에 발각되어 강제복송된 것이다. 가부장제 속 이등국민, 위협을 무릅쓴 장마당 경제 활동, 생존을 위한 결혼과 임신, 검거와 강제 송환, 조국이 짓밟은 어미의 권리. 어느 과정에도 인간, 여성에 대한 존중은 없다. 이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이전의 혼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자녀 양육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 어려움과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⁴⁰⁾ 상황이 이러한데

39)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2017), 30쪽, 〈표 3-1〉 탈북여성의 공간별 인권침해 목록 참조.

40) 박소연,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 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도 지현아는 “밥에 굶주린 인민과 / 인민의 피에 굶주린 조국을 보았다.”며 인민과 조국의 관계로 마무리한다. 지현아가 여성시인이지만 북한의 ‘이등 국민’의 계급적 입장에서 벗어나 아직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또 젠더적 관점에서 생각과 의식을 발전시킬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북한을 벗어났지만 북한여성의 자의식은 여전히 그들에게 작용하는 강한 체제 원심력이다.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 열어 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들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미망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집 2호(2017), 5~10쪽.

사람이 죽어요
내친구도 죽어가요
불러도 불러도 왜 대답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지현아, “정말 아무도 없나요” 전문⁴¹⁾

이곳은 신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짓밟히고, 아프고, 두려운 곳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이곳 안에 갇힌 화자는 ‘거기’에 호소한다. ‘아무도 없냐?’ 반복적으로 묻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군가 있는 것을 아는데 들리지 않느냐고? 대답을 하지 않을 거냐고? 정말 모르는 척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냐고? 절규하고 채근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정상적 권력 구조의 군대국가이고 그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사국가 군대국가인 북한이 군사력에 몰두할 수록 그들의 경제는 붕괴되고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며 억압과 통제는 심해진다. 그곳에서 인권이 지켜지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짓밟힘, 신음, 아픔을 해결하는 일 앞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세계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 시의 독자인 남한의 일반인들에게 지현아의 절규는 전형적인 탈북시의 수사로 인식될 수 있다. “피에 주린 조국”처럼 이 시 또한 여성, 인권, 고통에 대한 심도있는 인식과 사고가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음, 아픔을 제발 들어달라는 외침과 절규는 공허하고 힘없는 문학적 수사로 보이지만 그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은 구체적이거나 핏진하지는 않지만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의 오늘

41) 지현아, “정말 아무도 없나요,” 『망명북한작가 PEN 문학』(2015), 59~60쪽.

의 ‘말’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보내는 구조 신호로 보이는데, 외부세계에 있는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히 북한 밖의 사람들만은 아니다. 세계 여론, 인권 단체뿐 아니라 남한의 이웃일 수도 일터의 동료일 수도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국 사회, 이웃, 동료들에게 하는 호소일 수 있다. 우리가 이 호소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한국에서의 그들의 삶은 새로운 지옥이 될 수 있다. 지현아의 공허하고 수사적인 호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트라우마에 대한 토로이기도 하다.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만큼이나 탈북인들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적지 않은데⁴²⁾ ‘분단국가라는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 ‘정치적 상황에 따른 긴장감, 정치적 희생물이 될 것같은 두려움, 공개적 활동에 대한 위협감’⁴³⁾ 등의 정치적 입장 또한 탈북인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남한에서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곧 반사회적·반국가적 행위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이 탈북시인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착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수동적 존재로 길들여진다는 느낌,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배제, 무엇인가 큰 상처를 떠안고 흘러온 사람들로 보는 시선에 깔린 ‘낙인효과’, 새롭게 이룬 가정에서도 여전한 가부장적 성역할, ‘적대 국가에서 온 가난하고 열등한 소수자’ 중 여성이라는 불편한 시선과 같은 이중, 삼중의 고통⁴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층의 편견과

42) 서보혁, “북한인권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화연구』, 23집 6호 (2017), 50~60쪽.

43) 임희경·한재희, “고학력 지식인 탈북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현상,” 『상담학 연구』, 18집 4호(2017), 114쪽.

44)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2017), 30쪽, <표 3-1> 탈북여성의 공간별 인권침해 목록 참조.

차별 안에서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고 토로하지만 현재 이곳의 모순과 어려움은 자기검열의 과정을 거쳐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4. 이식의 삶과 존재 증명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중국과 같은 경유지를 거친다. 그중 많은 수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버렸으며 가족과 헤어졌고, 인신매매, 강제혼으로 인간 자존을 침해 받고 존엄한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 영혼의 상처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주는 고통과 죄책감은 내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남한에 이식된 정체성, 정서, 지식, 사회적 인성, 자존감을 정립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내야 한다.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닌데 이들은 이방인이다.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들과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외국인보다 더 이질적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살아가며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탈북여성은 탈북자의 고통과 함께 한국에서 이룬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탈북경유지에서 맺은 결혼 관계의 유지와 갈등, 탈북남성과 이룬 가정에서 재현되는 북한가족제도의 가부장적 성역할, 경험과 교육의 부족으로 제한적인 직업, 탈북 2세대 혹은 1.5 세대 자녀들 교육, 부양, 관계의 문제⁴⁵⁾, 경제적 어려움

45) 김혜숙, “아들이 왔다,” 『망명북한작가PEN』(국제PEN북한망명PEN센터, 2014. 12); 지현아, “미안하다, 애들아!,” 『망명북한작가PEN』(국제PEN북한망명PEN센터

등은 ‘적대국가에서 온 가난하고 열등한 소수자이자 가족 안에서도 억압된 성역할로 고통받는 여성’을 만들고 있다.⁴⁶⁾

어디선가 많이 본 눈이다.

어미를, 오라비를

누이를 잃은 눈이다.

버림을, 모멸을

학대를 당한 눈이다.

그런 눈들이

하나, 둘 모여

미지의 도시 속에서

함께 동거를 한다.

송시연, “거울” 부분⁴⁷⁾

시인과 화자의 거리를 인식할 수 없는 독백조의 이 시에서 송시연은 거울 속에 담긴 자신을 들여다본다. ‘소싯적에 백합처럼 예쁘고’, ‘순결’한 ‘너’, ‘호수같이 맑았던 시원한 두 눈’이 보인다. “바깥 저쪽에서 / 누군가 훑쳐” 보자 “너는 주눅 들어 기가 죽”었고 너는 ‘가족을 잃고 버림받고 모멸당하고 학대당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 “바깥 저쪽”은

터, 2014.12); 박주희, “기다려다오,” 『계간문학에스프리』(문학에스프리, 2015, 겨울). 이 시들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 자녀를 탈북시켜 데리고 온 후에도 그들의 적응과 자신의 부재로 겪은 고초에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 있다. 새로운 세대인 탈북자녀와의 관계는 탈북 여성 시에서 포착되는 새로운 문제이다.

4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2017) 참조

47) 송시연, “거울,” 『계간 에스프리』(문학에스프리, 2015, 여름), 270~271쪽.

지현아 시 “정말 아무도 없나요”의 “거기”처럼 단순한 외부의 시선이 아니다. 그를 탈북하게 했던 상황, 검거하여 송환하려는 힘, 탈북여성을 보는 차별적 시선 그리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모멸과 학대의 기억, 그것을 애써 참아내고는 있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를 리 없는 자신의 시선만은 무시할 수도 참을 수 없다. 거울보기라는 일상의 행위 중에도 문득문득 재현되는 트라우마와 예뻐던 시간을 잃듯 자존감을 잃은 눈들은 낯선 도시에 이식되어 살아간다. 그들은 이 도시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모멸받고 학대받은 이들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착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는 삶, 그곳에 이식되는 삶은 또 하나의 트라우마이다.

너를 보내며

슬픈 인연이었다면
다음 생애에서는
즐거운 인연으로 만나자

끝내 너를 놓는구나
무엇이 너를 놓게 하는 건지
무엇이 우리를
슬픈 인연으로 만들었는지

지금은 말 못해도
다음 생애에선 꼭 말할게

한이 맺혀도 이젠 눈 감어

억지로 감긴다고

뛰라하지마

나도 힘드니까

그리고 나도 곧 함께

기다려!

지현아, “너를 보내며” 전문⁴⁸⁾

‘나’는 ‘너’에게 이번 생애에서 슬픈 인연이었지만 다음 생애에서는 즐거운 인연으로 만나자며 나는 너를 떠나보낸다. 내가 너를 ‘억지로’ ‘놓’으므로 하게되는 이별이다.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으며 이유도 듣지 못하고 떠나야해서 한이 되더라도 ‘눈 감’으라고 한다. 눈 감다는 죽음의 의미이지만 이들의 이별은 죽음과도 같은 이별, 분리, 포기, 상실, 망각의 은유로 보인다. ‘너’가 누구이든 혹은 무엇이든 내가 너를 보낸다고 질책하지 말라한다. “나도 힘드니까” 힘들어서 놓았고, 보내는 것이 힘들고, 왜 보내느냐는 항변을 듣는 것도 힘들고, 지금 나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나도 곧 함께 / 기다려!”라는 표현은 상처받은 이의 오열처럼 들린다. ‘너’가 구체적 대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명 있는 존재의 죽음으로만 이 시를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지현아의 다른 시편들을 통해 보여준 상처받은 여성의 목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48) 지현아, “너를 보내며,” 『망명북한작가 PEN 문학』(2015), 60쪽.

삶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내 모습 즉, 추억, 지식, 경험, 기호, 정체성 등과 같이 굳건히 나를 증명해 주던 ‘사회적 존재 증명’을 잊어야 하는 것이 이식(利殖)의 삶이다. 탈북만큼이나 남한에서의 정착과 삶의 지속은 쉽지 않은 ‘힘든’ 일이다. 그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면과 일상을 드러내는 말하기가 아니라 많은 말을 숨기는 방식으로 쓰인 이 시에서 더 절절한 외로움, 공허,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여성탈북자들이 임상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⁴⁹⁾이 높다고 한다. “탈북 트라우마보다 지금 현재의 남한에서 감당해야 하는 인간관계 문제가 시급하다”⁵⁰⁾는 문학치료 결과도 있다. 탈북여성의 생애사⁵¹⁾, 구술사 연구⁵²⁾ 등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탈북여성은 정착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만 사회적 편견과 배제로 매우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한다.⁵³⁾ 심리, 상담, 집단 활동, 문학치료⁵⁴⁾, 예술치

49) 홍창영·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집 6호(2005)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유병률이 여성들은 37.4%, 남성은 23.9%로 13% 이상 높게 나타났다. 김연희·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과 영향 요인: 2007년 입국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2010)에서는 48.4 %가 불안, 우울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의 스트레스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 박재인,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 치료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30호(2015), 412쪽.

51) 김종균·정진아 엮음,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통일인문학구술총서 1, 박이정출판사, 2012).

52) 정성미, “자기 삶 이야기와 자아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문학교실>의 언어표현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9집(2017).

료, 종교⁵⁵⁾ 등의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연구⁵⁶⁾가 진행되고 있지만 탈북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각인된 트라우마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⁵⁷⁾ 알려져 있다.

탈북여성시에 전형적으로 토로된 고통과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맥락, 상처받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재현되는 트라우마, 이식된 삶의 버거움 등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토로하고 외치고 숨기고 독백하는 방식으로 드러나 있었다. 이들의 시는 중층의 트라우마에 짓눌린 이들의 말하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예술치료, 심리, 상담, 페미니즘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배고픔에 지쳐 탈출을 했다

한 끼 밥을 위해 기꺼이 빠져 버렸다.

피가 멎히도록 입술을 깨물고

53) 박소연,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권 2호 (2017), 27쪽.

54) 박재인,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 치료적 접근”.

55) 김재영, “탈북자의 상처와 치유,”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호(2017).

56)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경진출판, 2015).

57) 성정현은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집 5호(2014)에서 탈북여성이 경험한 외상 사건으로 투옥, 도망과 체포, 인신매매와 성폭력, 차별과 배신, 죽음의 목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악몽과 수면장애, 회상과 기억의 반복, 경험의 회피가 일어난다고 보고한다. 또 이러한 PTSD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차별과 부당대우, 낙인, 적과의 동침, 인신매매로 강제결혼한 배우자와 공생하는 현실, 끝나지 않는 빈곤, 육체적 고통, 용서불가, 관계단절, 자살의도(충동)로 재현되고 후회와 분노, 무희망 등의 심리적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수난의 강에 거꾸로 처박히었다.

그리고

탈출, 방랑, 수감, 치욕, 죄인, 죽음
이런 단어들과 익숙해졌다.

따스한 가슴을 내어 주었던
어머니는 주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와 친숙해진 것은
그 나라의
위대한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난 그 나라의
불온한 딸이어서
아무 데나 던져졌다
온 몸이 너털너털 찢기었다.

아, 다시 태어난다면
독재가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태어나고 싶다.

생명을 부르는
어머니의 달콤한 젖줄을 물고
따스함, 온정, 사랑, 풍요
이런 단어들과 친숙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진정 사람이고 싶으니까

송시연, “진정 사람” 전문⁵⁸⁾

‘탈출, 방랑, 수감, 치욕, 죄인, 죽음’과 같은 ‘수난의 강’에 빠진 이유는 배고픔 때문이다. 한 끼 밥은 이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 따스함, 온정, 사랑, 풍요와 같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의 감정과 조건은 사치스러운 동경의 대상이다. 쉽게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 ‘그 나라의 위대한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비아냥과 냉소는 ‘아무 데나 던져지’고 ‘온 몸이 너덜너덜 찢’긴 딸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비난이다. 그 나라의 아버지는 배고픔, 방랑, 수치, 죽음에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 분노는 불온할 수 없다. 이것들은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면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송시연 시인은 따스함, 온정, 사랑, 풍요가 있어야 ‘진정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이 시의 ‘진정 사람’이란 ‘그저 사람’과 같은 말이다. 사람이 되는 조건은 따스함, 온정, 사랑의 근원인 ‘어머니’이다. 거꾸로 쳐박히고 너덜너덜해진 자신이지만 이 시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과 긍정의 맹아가 있다. 바로 자신이 ‘불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온해서 내팽개쳐졌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따스함, 온정, 사랑, 풍요와 같은 보통 인간의 조건을 동경하는 인간선언의 당당함이 생겨날 수 있다. 독재를 배척하고 어머니의 생명과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임을 송시연은 깨닫고 있고 그것을 당당히

58) 송시연, “진정 사람,” 『망명북한작가 PEN 문학』(2015), 55~56쪽.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 겹겹으로 쌓인 트라우마와 그것을 드러내는데 미숙하거나 짐짓 숨기거나하는 탈북여성시의 당당한 전진을 보게 된다. 여성으로서의 고통과 기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을 선언하고 당당히 자신의 불온함을 이해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대면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여태까지 탈북여성시의 전반적 특징, 의미, 한계를 트라우마의 드러냄과 숨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체제에 대한 신랄한 고발과 증언, 탈북 과정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참상과 고통의 토로,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상적 그리움, 남한 정착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가 탈북시의 유형적 주제인데 탈북여성시 역시 그 이상의 자의식과 정치의식, 구체적 생활감정, 내면의 목소리가 푹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여성이기에 꺾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탈북여성시에서 보편적인 주제, 내용으로 형상화되거나 심도 있게 파헤쳐지지 않은 것이다.

배고픔과 가족의 목숨 앞에서 인간의 경계에 서야 했던 비인간의 기억,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인민’의 고발과 토로는 높은 목소리로 드러나 있지만 여성의 운명과 여성을 핍박하는 국가에 대한 깨달음은 탐구되지 못했고 젠더적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고통은 묻혀 있었다. 탈북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정착의 어려움을 푹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는 적대국가에서 온 이방인, 소수자, 상처받은 자신에 대한 연민, 달라지지 않은 성역할,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제한된 사회적·정치적·심리적 맥락이 투입해 있었다.

탈북여성들의 시와 시 쓰기는 감정, 예술만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 상처받은 이의 오늘의 ‘말’이기 때문에 문학, 예술, 감성을 넘어선 정치, 사회, 복지, 심리적 언어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또한 분단 극복의 노력에 속한다. 분단이 역사적 민족적 외상이라면 개인에게는 생명의 위협, 죽음 목격, 인신 구속, 성매매, 가족과 이별, 낯선 곳에 이식, 소수자 이방인의 처지, 정치적 방어기제 발동 등은 명백한 심리적 외상이며 아직도 살아 있는 분단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 접수: 7월 2일 / 수정: 8월 2일 / 채택: 8월 7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경진출판, 2015).
- 김수진, 『天國을 찾지 마시라 국민이여 우리의 대한민국이 天國이다』(조갑제닷컴, 2015).
- 김옥, 『눈물 없는 그 나라』(서울문학출판부, 2009).
- 김옥애, 『죽사발 소동』(삼우사, 2005).
- 김종균·정진아 엮음,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통일인문학구술총서 1, 박이정출판사, 2012).
- 박덕규·이성희 외, 『탈북 디아스포라』(푸른사상, 2012).
- 백이무, 『꽃제비의 소원』(글마당, 2013).
- _____,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글마당, 2013).
- 오은정, 『고향을 부르다』(작은통일, 2015).
- 이가연, 『밥이 그리운 저녁』(마을, 2014).
- _____, 『엄마를 기다리며 밥을 짓는다: 꼭 한번만이라도 가봤으면』(시산책사, 2015).
- 이수빈, 『힐링 러브』(북마크, 2012).

2) 논문

- 강미정,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경험담에 나타난 트라우마 분석,” 『문학치료연구』, 30집(2014).
- 강정구, “탈북이주민(脫北移住民) 문화의 시적 수용,” 『외국문학연구』, 35호(2009).
-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2집(2009).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2017).
- 김소련, “탈북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여성문학연구』, 41호(2017).
- 김연희·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형률과 영향요인: 2007년 입국자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2010).

- 김재영, “탈북자의 상처와 치유,”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5호 (2017).
- 도명학, “이 가련한 ‘꽃제비 시인’과 함께 울어 주세요!,” 『꽃제비의 소원』(글마당, 2013).
- 류신, “대동강과 한강을 잇는 시적 상상력의 가교,” 『실천문학』, 83호(2006).
- 박덕규,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권 3호(2015).
- 박덕규·김지훈,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Shadow)’ 형상화 문제,” 『한민족어문학』, 67집(2014).
- 박소연,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권 2호 (2017).
- 박재인, “탈북과 적응이 남긴 문제에 대한 문학 치료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30호(2015).
- 방민호, “한국어문학, 북한문학, 탈북문학, 분단문학, 전후문학: 해방 이후 문학 연구 방법 및 개념적 도구들,” 『국제학술대회 탈북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자료집』(서울대학교 신양문학관 국제회의실, 2017.8.26).
- 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11호(2017).
- 서보혁, “북한인권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교육문화연구』, 23집 6호 (2017).
- 서세립,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68집(2017).
- 성정현,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집 5호(2014).
-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2집 (2013).
- 이상숙, “탈북시에 나타난 시쓰기의 역할과 의미,” 『아시아문화연구』, 46집 (2018).
- 이성희, “탈북자 소설에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 연구,” 『한국문학논총』, 51호(2009).
- _____, “탈북자의 고통과 그 치유적 가능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6권 4호(2015).
-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호(2017).

임도한, “극심한 기아 체험과 욕망 억제의 가능성,” 『문학과 환경』, 8권 2호 (2009).

임희경·한재희, “고학력 지식인 탈북자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현상,” 『상담학 연구』, 18집 4호(2017).

정성미, “자기 삶 이야기와 자아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문학교실>의 언어표현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9집(2017).

홍창영·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집 6호(2005).

3) 기타 자료

『계간 문학에스프리』(문학에스프리, 2013~현재).

『망명북한작가PEN』(국제PEN 북한망명PEN센터, 2014~현재).

『통일코리아』(통일코리아, 2014~현재).

통계청, “북한이탈주민 관련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검색일: 2018.4.16) (출처: 통일부. 최근 갱신일: 2018.3.16).

Traumas in the Poems of the woman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Lee, Sang Sook(Gach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raumas in the Poems of the woman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hese poems not only include poem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s, but also poems on the subject regardless of whether the authors have had such experiences. However, in this paper, North Korean defection poems are limited to poems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s. The themes of North Korean defection poems are testimony, condemnation, yearning, and appeal. The Poems of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is not different.

The Poems of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speak of the hunger experienced in North Korea, the struggle against oppression, yearning and guilt over one's family and hometown, and pity for North Koreans who are still under suffering. They describe the painful process of defection and difficulties faced in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As such, The Poems of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should be

perceived as “words of pain from a refuge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oet’s literary career or quality of writing.

The poets have faced significant threats to their lives and human dignity, and defection is a traumatic event that continues to haunt them. Poetry releases them from such trauma and fulfills the central role of literature — providing them a firm grasp of reality and comforting them at the same time. A mother who had to sell her daughter out of hunger; kids begging for money in the streets of China; a woman living in South Korea who sees her mother in her dreams every night; and an account of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s — The Poems of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are the wails and lamentations of all who are hurt.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The Poems of female defectors from North Korea, trauma